



## 북한의 산림 황폐화, 남북협력으로 해결

### □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 추진 경과

- 남북은 9.19 평양정상회담에서 산림협력을 우선 추진과제로 상정
  -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**산림협력 TF** 신설
    - \* 2019년 산림협력사업 예산으로 1,137억원 신청(2018년 300억)
- 평양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 **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**을 두 차례 개최('18.7.4, '18.10.22)

#### <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 결과>

-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, 임농복합경영, 산불방지 공동대응, 사방사업 등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
  - 남측은 11월중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 제공
  - 올해 안에 북측의 10개 양묘장 현대화 사업 추진
    - : 필요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 현장방문 진행
- 산불방지,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
  -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 등 협의

- 한국 정부는 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**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약제 50t(약 14억)**을 북한에 지원
  - ※ 남북은 지난 8월 8일 금강산에서 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현장공동점검 진행
- 양묘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, **대북제재 저축 여부를 검토** 중이며 연내에 양묘장 현대화 사업(10개) 추진여부는 불투명
  -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를 인정(11월 23일)받은 것과 같이 예외조치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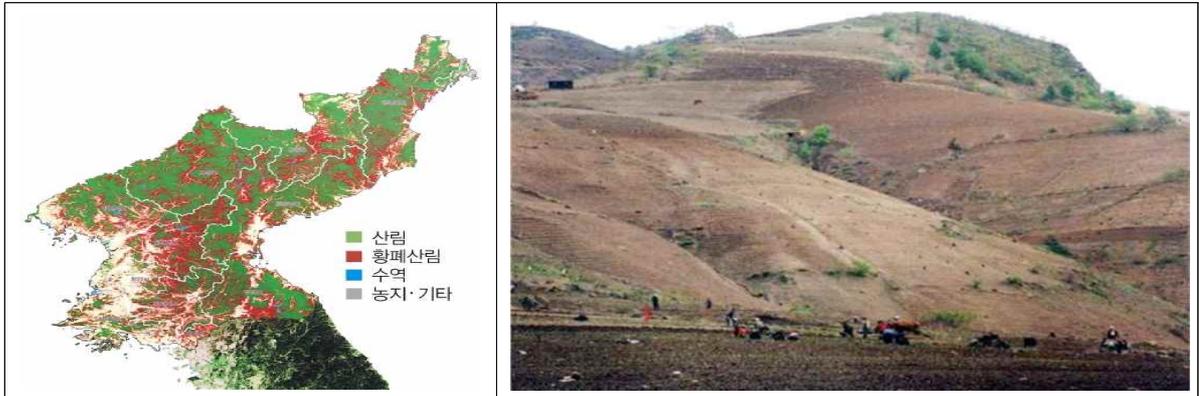
## □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

○ 북한의 산림면적 899만ha 중 284만ha(32%)가 황폐화(국립산림과학원)

- 지난 25년간 북한의 산림면적 중 38.7% 감소(UNDP)

\* 북한은 산림황폐화 지수 3위로 '극단적인 산림 황폐화국'에 속함(Maplecroft)

### < 북한 산림의 황폐화 실태 >



출처 : 국립산림과학원, 신동아

\* 왼쪽 북한지도의 붉은 색이 황폐화된 산림

## □ 단계적 산림복구 방안

### ① 산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

-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제 약제 및 양묘장 현대화 지원

\*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예외 인정 추진

### ② 맞춤형 산림복구와 훼손방지 병행

- 산림 지역의 특성과 황폐화 정도에 따라 맞춤형(郡 단위) 지원

\* 황폐화된 고지대(숲가꾸기), 경사 낮은 저지대(산림농업), 경사도 높은 저지대(보전) 등

- 주민들의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저비용의 대체(재생)에너지 개발

### ③ 파리 기후협정(온실가스 감축\*) 이행을 통한 중·장기적 협력

\* 2030년까지 한국은 37.4%, 북한은 국제사회 지원을 전제로 40% 감축 계획

- 북한에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(REDD+)\*을 적용할 경우, 30년간 탄소배출권 총 4,000만톤(약 1조원), 공익가치 약 123조원(산림과학원)

\* REDD+ :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+